

10가지 결과물 샘플

설명이 아니라, 완성된 모습으로.

01—10

부모님의 한 권 · 한 권의 문학

그해의 봄

1949 - 2026

RESULT 01 · 정통 자서전 샘플

한 권의 문학

첫 기록 9,900원 · 6쪽 미니 PDF · 음성 10분

제3장 · 가장 빛나던 계절

그 시절에는 모든 것이 빠듯했지만, 이상하게도 웃을 일은 참 많았다. 네 엄마와 처음 바다를 보러 간 날도 그랬다.

사진 한 장을 찍고 돌아오는 길, 우리는 다음 여름에도 함께 오자고 약속했다. 그 작은 약속이 오십 년을 이어갈 줄은 몰랐다.

말투의 온도는 남기고, 한 사람의 생애가 문학처럼 읽히도록 편집합니다.

부모님의 한 권 · 생일 선물

엄마의 일흔 번째 봄

1949 - 2026

RESULT 02 · 칠순 선물 샘플

생일 선물

실물 효도책 109,000원 · 48쪽 책 2권 · 선물 포장·배송

생일 특별장 · 우리가 엄마에게

엄마가 우리 나이였을 때에도 모든 일이 처음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라는 동안 엄마도 함께 자라고 있었겠지요.

일흔 번째 생일에는 꽃보다 오래 남는 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엄마의 지난 시간을 우리 가족의 가장 소중한 선물로 간직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생애 이야기와 자녀들의 헌정문을 한 권의 생일 선물로 묶습니다.

부모님의 한 권 · 목소리 보관

밥은 먹었니?

1949 - 2026

RESULT 03 · 음성 아카이브 샘플

목소리 보관

디지털 효도책 39,000원 · 30쪽 PDF · QR 음성

TRACK 07 · 자주 하시던 말씀

아버지는 전화를 끊기 전에 늘 같은 말을 하셨다. 밥은 먹었니. 짧은 질문 안에는 걱정과 안도, 서툰 사랑이 한꺼번에 담겨 있었다.

책 속 QR을 비추면 그날의 목소리가 다시 흐른다. 웃음 뒤의 짧은 숨과 천천히 이어지는 말까지 원본 그대로 남는다.

읽는 기록과 다시 들을 수 있는 원본 음성을 함께 보관합니다.

부모님의 한 권 · 사진의 뒷이야기

사진 뒤의 여름

1949 - 2026

사진의 뒷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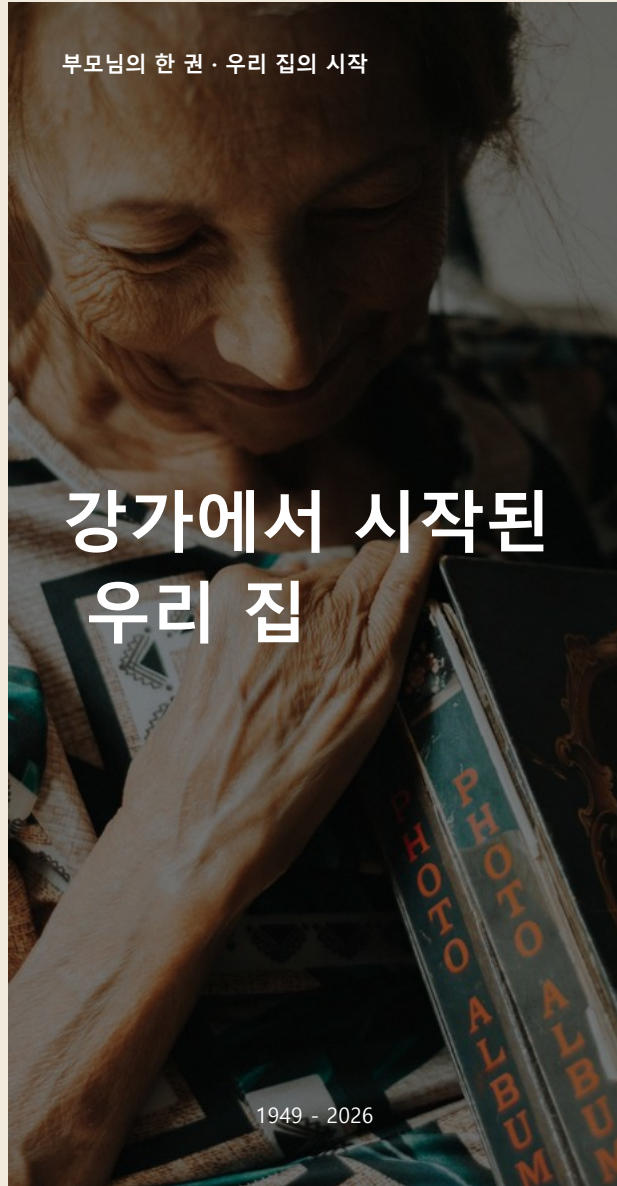
실물 효도책 109,000원 · 사진 20장 · 책 2권·배송

사진 12 · 1974년 부산 송도

사진 뒤에는 연필로 '송도, 여름'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어머니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 그날 처음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고 말했다.

누가 셔터를 눌렀는지, 돌아오는 버스에서 어떤 말을 나눴는지까지 듣고 나자 한 장의 사진은 비로소 한 계절이 되었다.

흩어진 사진을 복원하고, 사진마다 사람·장소·마음을 기록합니다.



우리 집의 시작

디지털 효도책 39,000원 · 가족 연표 · 30쪽 PDF

가족 연표 · 1932-2026

우리 가족의 첫 주소는 지도에도 이름이 작게 적힌 강가 마을이었다. 장날이면 증조할머니는 새벽길을 걸어 읍내에 나갔다.

고향에서 서울로, 단칸방에서 첫 번째 우리 집으로. 네 세대의 이동을 지도와 연표, 가계도로 한눈에 정리했다.

고향·이주·가족의 탄생을 지도, 가계도, 연표가 있는 가족 역사책으로 만듭니다.

부모님의 한 권 · 부모님의 편지

사랑하는 딸에게

1949 - 2026

부모님의 편지

첫 기록 9,900원 · 6쪽 편지 PDF · 음성 10분

두 번째 편지 · 네가 엄마가 된 날

네가 엄마가 되고 나서야 내 마음을 조금 알겠다고 했지. 나도 네 나이에 모든 것이 처음이었단다.

잘한 것보다 서툴렀던 날이 더 많았지만, 너를 사랑하는 일만큼은 한 번도 망설인 적이 없었어. 언제나 네 편인, 엄마가.

평소 꺼내지 못했던 사랑과 미안함을 부모님의 말투로 정리한 편지책입니다.

부모님의 한 권 · 더 늦기 전에

오늘 문길 잘했
다

1949 - 2026

RESULT 07 · 빠른 기록본 샘플

더 늦기 전에

첫 기록 9,900원 · 핵심 질문 10개 · 6쪽 PDF

질문 18 · 가장 용감했던 날

아버지에게 가장 용감했던 날을 문자 오래 생각할 줄 알았다. 대답은 의외로 빨랐다. '서울 가는 기차표를 혼자 샀던 날이지.'

서른 개의 핵심 질문만으로도 처음 듣는 이야기가 이어졌다. 완벽하게 준비한 다음이 아니라, 오늘 시작했기에 남길 수 있었던 기록이다.

준비 부담을 줄이고 핵심 질문 10개로 48시간 안에 완성하는 첫 기록입니다.

부모님의 한 권 · 손주의 역사책

할머니도 아이였어

1949 - 2026

RESULT 08 · 가족 그림책 샘플

손주의 역사책

디지털 효도책 39,000원 · 쉬운 문장 · 30쪽 PDF

두 번째 이야기 · 학교 가던 길

할머니가 여덟 살이던 해에는 학교까지 한 시간을 걸어갔대. 비가 오면 고무신 안에서 발가락이 찜병찜병 헤엄을 쳤지.

손주는 '할머니도 숙제하기 싫었어?'라고 물었다. 할머니는 크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잠시 사라졌다.

손주가 질문하고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쉬운 문장과 사진으로 만든 가족 이야기책입니다.

생애 아카이브

디지털 효도책 39,000원 · 생애 연표 · 30쪽 PDF

자료 24 · 1981년 개업 장부

1981년 3월 12일, 첫 거래가 장부에 기록되었다. 구술 내용은 당시 영수증과 신문 기사, 가족이 보관한 사진을 대조해 연표에 배치했다.

기억이 서로 다른 부분은 단정하지 않고 주석으로 남겼다. 이름과 날짜를 찾을 수 있도록 인명 색인과 자료 목록도 함께 구성했다.

부모님의 한 권 · 생애 아카이브

김영수 생애 아
카이브

1949 - 2026

구술·사진·문서를 교차 확인하고 연표·주석·색인을 더한 본격 보존판입니다.

부모님의 한 권 · 모든 날의 제목

아직 제목 없는 내일

1949 - 2026

RESULT 10 · 감성 에세이 샘플

모든 날의 제목

첫 기록 9,900원 · 6쪽 에세이 PDF · 음성 10분

제목 17 · 누군가의 전부였던 날

별일 없었다고 생각한 날들이 사실은 우리 가족을 만든 날들이었다. 늦은 밤 현관 불을 켜두던 날, 도시락 뚜껑에 짧은 메모를 넣던 날.

아버지는 내일의 제목은 아직 모르겠다고 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는 비워두었다. 아직 살아갈 이야기가 남아 있다는 뜻으로.

연대기 대신 인생의 장면마다 제목을 붙여 한 편의 현대적인 에세이로 엮습니다.